‘다복다복’은 풀이나 나무 등이 여기저기 아주 탐스럽게 소복한 모양을 의미해요. 다복다복 펜션의 뒤편을 보시면 정말 다복다복하거든요. 다복다복 펜션의 입구는 길가여서 아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뒤편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세화 마을 안에 있어서 걸어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맛집과 카페도 가보시길 권해요. 세화해변까지는 걸어서 2분. 다복다복 펜션에 머물면 세화 마을 동네 주민처럼 살아볼 수 있어요.

"제주에서 나고 자랐어요. 제주시 근처 이호테우 해변이 고향이고, 결혼해서 시댁인 세화 마을로 왔죠.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두고, 세화 마을에서 30년을 살았으니 이젠 세화 마을이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살고 있지만, 시댁이 바로 옆이어서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여행 오셔서 다복다복 펜션에 머무는 분들 모두 제겐 또 하나의 가족같이 느껴져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청소더라고요. 남편이 늘 칭찬해 줬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과 대화하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숙박업을 해봐도 잘할 거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때의 그 말이 계기가 되어 2019년 6월 다복다복 펜션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자주는 아니어도 가족여행을 다닐 때마다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며 다복다복 펜션을 꾸리고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방’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복다복 펜션을 만들었어요."

다복다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 7길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72-9

숙소의 특별한 점

•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 동네 바로 근처에 병원이 있어 안심이에요.

• 천연잔디 구장이 있는 세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의 공놀이와 제주해녀 박물관

• 여름엔 옥색, 가을과 겨울엔 코발트빛. 사계절 다른 빛깔의 세화 바다

• 세화 5일장과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모모장, 세화마을에서 운영하는 카페 ’질그랭이’는 꼭 가보세요.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제주에서 마을 주민처럼 살아보고 싶은 분

• 차량 없이 여행하는 뚜벅이 여행객

• 바다와 오름을 모두 즐기고 싶은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다복다복 펜션은 방이 총 2개로 각 방마다 최대 4인 까지 가능해요.

• 제주국제공항에서 세화 마을까지 직행버스가 있어, 차 없이 다니기에도 편리해요.

• 걸어서 5분 거리에 편의점, 걸어서 10분 거리에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 다랑쉬 오름과 용눈이 오름이 가까이 있어요.